



numbers

vol. 246

1960년대생, 그들은 누구인가?

60년대생 89%,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직장인의 이직 트렌드
- ② 주거양극화 인식

[넘버즈 칼럼]

인공지능 시대의 크리스천

2024. 7. 2.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60년대생 89%,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현재 한국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는 최대 인구집단은 1960년대생이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가 예고된 내년부터 65세가 되어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로 ‘마쳐 세대’라고도 일컬어지는 이들은 향후 10년 이내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돌봄 수요자이다.

60년대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의 생애 주된 일자리 은퇴 나이는 54세였고, 퇴직 후 절반 이상은 다시 재취업/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 또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60년대생이 56%였고, 대다수인 89%가 본인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넘버즈에서는 그동안 노인세대와 3040세대는 여러 번 다루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60년대생만을 조명해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회에서는 사회보다 더 빠른 고령화로 중간 세대에 속하며 대부분 집사 이상 직분에 해당하는 60년대생의 경제, 부양, 노후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고민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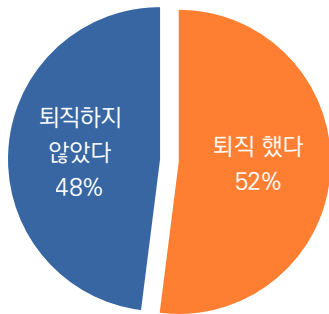
01

[일과 직장]

60년대생의 생애 주된 일자리의 은퇴 나이, 54세!

- 한국의 고용시장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큰 변화를 경험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 다니면 도둑)’ 같은 유행어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대변했다. IMF 이후 약 30년이 지나 은퇴를 바라보는 60년대생의 고용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는지를 묻은 결과, 절반 정도(52%)가 ‘퇴직했다’고 응답했고, 퇴직 경험자의 퇴직 나이는 평균 54세로 나타났다.

[그림]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여부 (60년대생)



[그림]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한 나이 (일자리 퇴직 경험한 60년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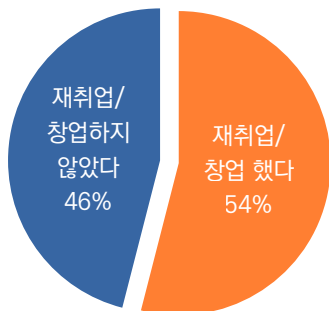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생애에서 가장 주되게 오래 해 온 일자리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절반 이상이 다시 일자리 가져!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퇴직 후 ‘재취업/창업했다’는 응답자는 54%였고, 퇴직 후 평균 2.3개의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퇴직 후 재취업/창업 여부 (주 일자리 퇴직 경험한 60년대생)



[그림] 퇴직 후 가진 일자리 개수 (주 일자리 퇴직 경험자 중 재취업/창업한 60년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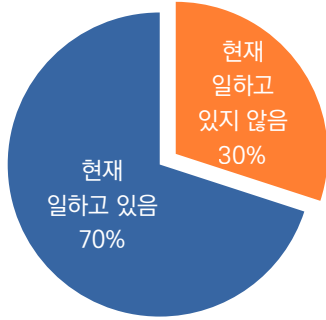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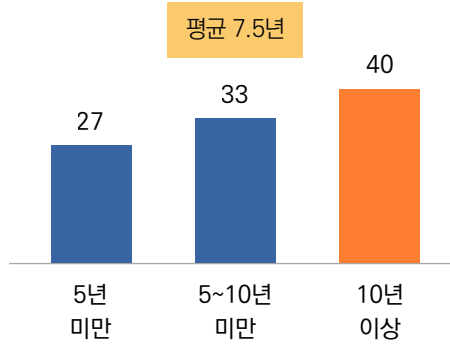
60년대생 10명 중 3명, 현재 일하고 있지 않아!

- 이번에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가 있는지를 물었다. '현재 일하고 있음' 70%, '일하고 있지 않음' 30%로 60년대생 10명 중 3명은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일자리가 있는 이들에게 향후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10년 이상'이 40%로 가장 높았고, 평균 7.5년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현재 일자리 유무 (60년대생)



[그림] 현재 일자리 예상 근속 기간 (현재 일자리가 있는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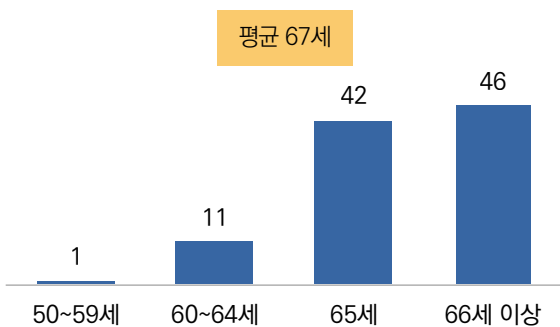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60년대생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 나이, 67세!

- 60년대생이 생각하는 적정한 은퇴 나이는 몇 세일까? '66세 이상'이 46%로 가장 많았고, '65세'가 42%를 차지했다. 두 비율을 합치면 88%로 60년대생 대다수는 65세 이상을 적정 은퇴 연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평균으로 보면 67세로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7세 더 높았다.

[그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은퇴 연령 (60년대생)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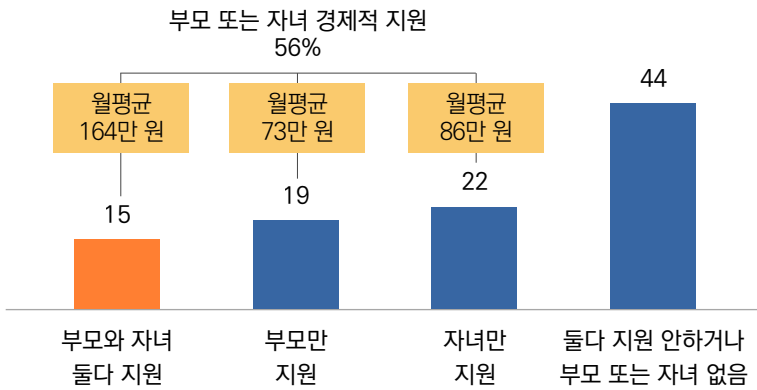
02

[가족과 부양]

60년대생 56%, 부모 또는 자녀 경제적 지원하고 있어

- 앞서 언급한 대로 60년대생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다. 부양의 한 지표인 '경제적 지원' 여부와 비용에 대해 살펴본다. 60년대생의 56%가 '부모 또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자녀만 지원' 22%, '부모만 지원' 19%, '부모와 자녀를 둘 다 지원' 15%로 각각 나타났다.
- 월평균 지원 비용으로는 '부모와 자녀를 둘 다 지원'하는 '이중 부양'의 경우 164만 원, '자녀만 지원' 86만 원, '부모만 지원' 73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림] 부모/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및 비용*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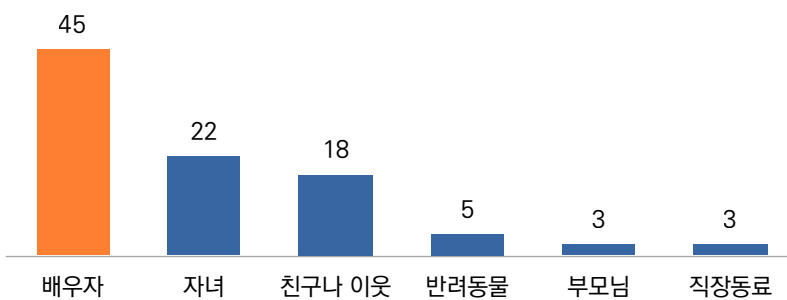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부모 있는 응답자)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자녀 있는 응답자)를 교차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임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 '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높아!

-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 결과, '배우자'가 4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자녀' 22%, '친구나 이웃' 18%, '반려동물' 5%, '부모님' 3% 등의 순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반려동물'이 '부모님', '직장동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것이다.

[그림]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 (60년대생,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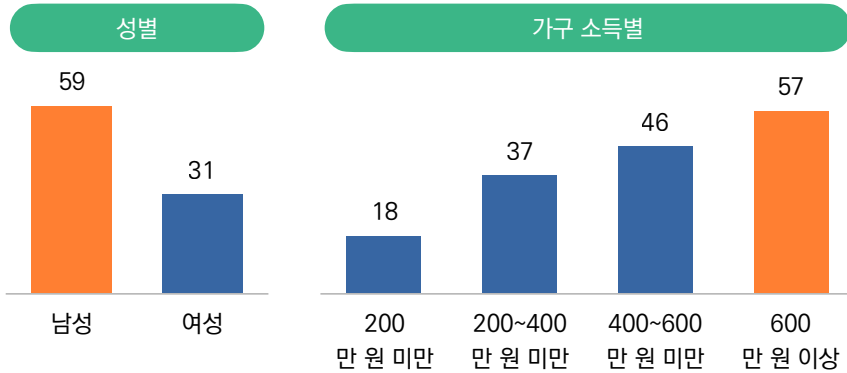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남성’과 ‘고소득 가구’일수록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으로 ‘배우자’ 꼽은 비율 높아!

-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을 성별,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성(59%)이 여성(31%)보다 배우자 선택 비율이 더 높았고,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응답자 특성별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으로 ‘배우자’ 선택 비율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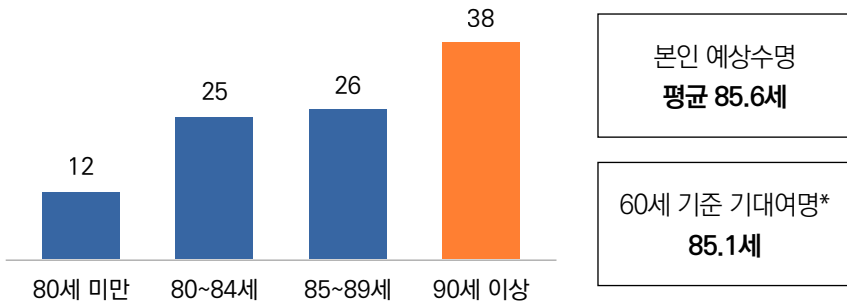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03 [건강과 여가] 60년대생,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30년 더 산다!

- 60년대생은 본인의 수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까? 38%가 ‘90세 이상 살 것’으로 예상했다. 즉 5명 중 2명 가까이가 본인이 90세 이상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기대여명’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2022년) 기대여명은 60세 기준으로 85.1세이다. 60년대생이 생각하는 기대여명은 평균 85.6세로 통계청이 발표한 60살 기준의 기대여명과 거의 비슷했다. 60년대생의 기대여명을 80대 중반으로 감안하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54세) 후 30여 년을 더 사는 셈이다.

[그림] 본인 예상수명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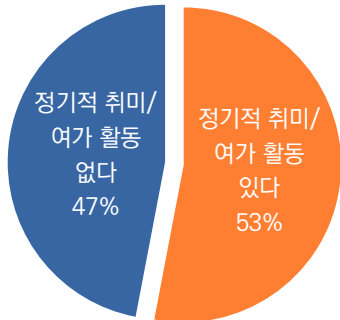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통계청 2022년 생명표

60년대생 2명 중 1명만이 정기적 취미/여가 활동 하고 있어!

- 60년대생들의 취미/여가 활동 수준을 살펴보았다.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53%가 정기적으로 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기에 사용하는 비용은 월평균 26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림] 정기적 취미/여가 활동 유무 (60년대생)



[그림] 월평균 취미/여가 활동 사용 비용 (정기적 취미/여가 활동 보유중인 60년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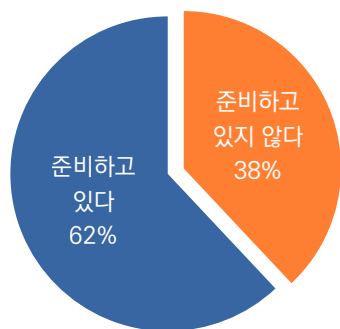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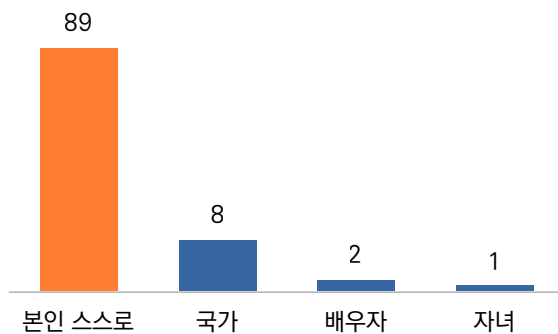
04 [노후 및 죽음 준비] 60년대생 89%,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 60년대생의 현재 노후 준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가 62%, '준비하고 있지 않다' 38%로 10명 중 4명은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는 60년대생 대다수(89%)가 '본인 스스로'를 꼽았다. 국가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라는 인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그림] 현재 노후 준비 여부 (60년대생)



[그림]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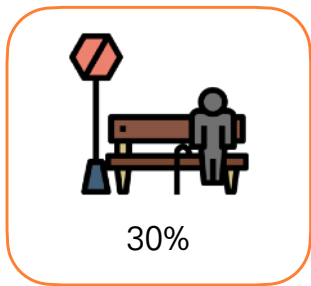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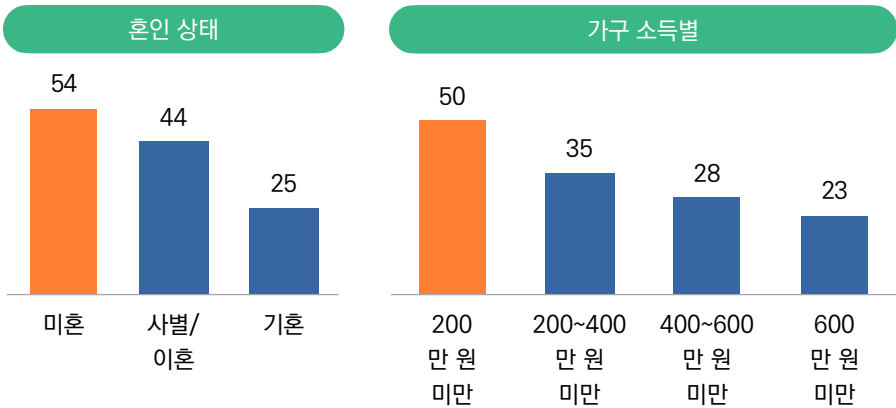
60년대생 미혼자,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54%

- 고독사할 가능성이 0~100%까지 있다고 할 때,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60년대생들에게 묻은 결과 평균 30%로 나타났다.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또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는데 미혼자인 경우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이 54%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자의 고독사 가능성은 50%로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60년대생)



[그림] 응답자 특성별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60년대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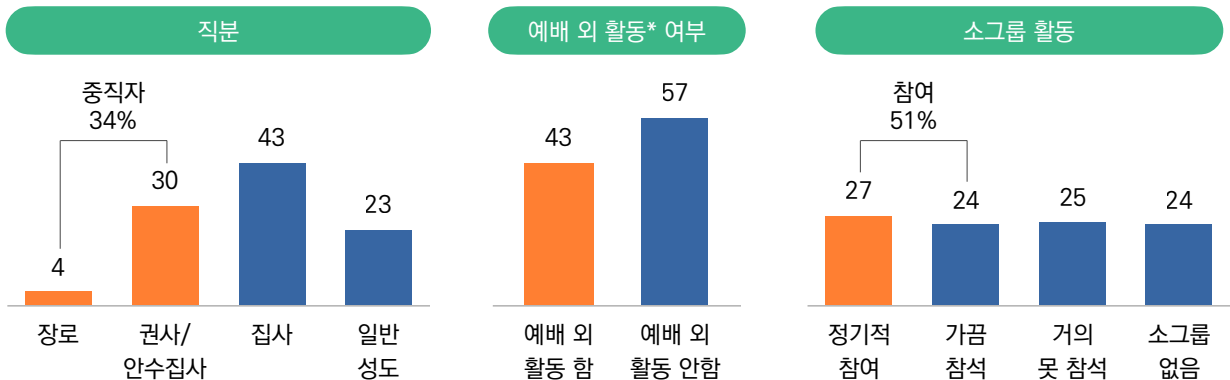


※출처 : (재)돌봄과미래,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2024.06.03. (전국 60년대생, 만55~64세 성인남녀 980명, 웹/모바일 조사, 한국리서치, 2024.05.08.~05.15.)

05 [60년대생 교회 출석자의 신앙과 고민] 교회 내 60년대생 3명 중 1명, 중직자!

- 한국기독교교회자협의회 자료에서 1960년대생 교회 출석자들의 교회 생활 관련 데이터를 뽑아 살펴본다. 직분별로 보면 집사가 43%로 가장 많았고, 권사/안수집사 이상 중직자 비율은 34%로 조사됐다.
- 예배 외 활동 여부를 묻은 결과, 절반이 채 안되는 43%만 예배 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소그룹 활동 참여자는 절반 가량(51%)이었는데 이중 정기적 참석자는 4명 중 1명 정도(27%)에 그쳤다.

[그림] 교회 생활 (60년대생 교회 출석자, %)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2023.04.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1.09.~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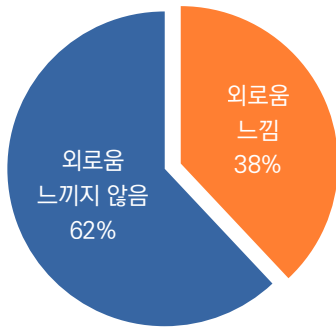
*친교, 회의, 봉사활동

Note) 코로나19 종료 시점의 조사 결과임. '예배 후 활동', '소그룹 활동' 결과 해석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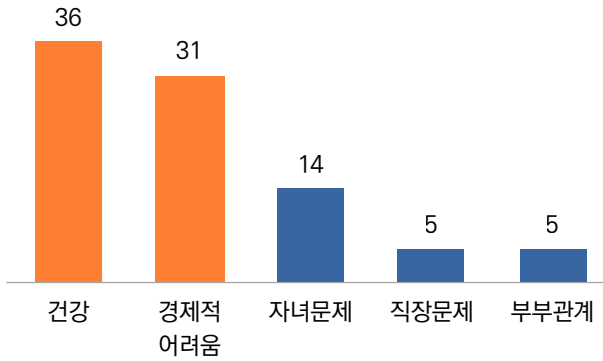
교회 내 60년대생 10명 중 4명, '요즘 외로움 느낀다'!

- 60년대 교회 출석자들의 외로움 정도를 물었더니 3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요즘 가장 고민되는 것으로는 '건강(36%)', '경제적 어려움(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요즘 외로움 정도*
(60년대생 교회 출석자)



[그림] 요즘의 고민거리 (60년대생 교회 출석자, 상위 5위, %)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2023.04.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1.09.~01.16.)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6.10.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5.12.~05.31.)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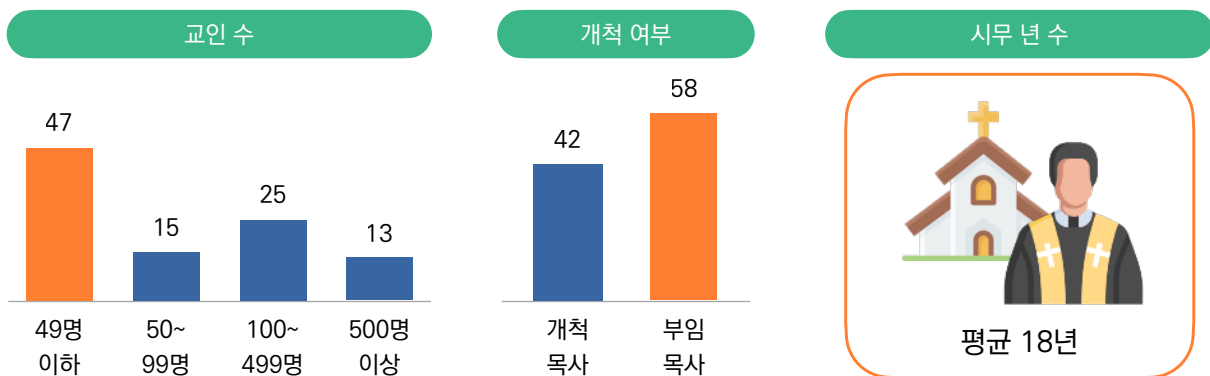
06

[60년대생 목회자 실태와 노후 준비]

60년대생 담임목사 시무교회의 절반은 50명 미만 소형교회!

- 이번에는 60년대생 담임목사들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본다. 담임목사들이 시무하는 교회의 교인 수는 절반 가까이 (47%)가 '49명 이하'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개척 목사(42%)'보다는 '부임 목사(58%)'인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이들의 시무 년 수는 평균 1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0년대생 담임목사 시무교회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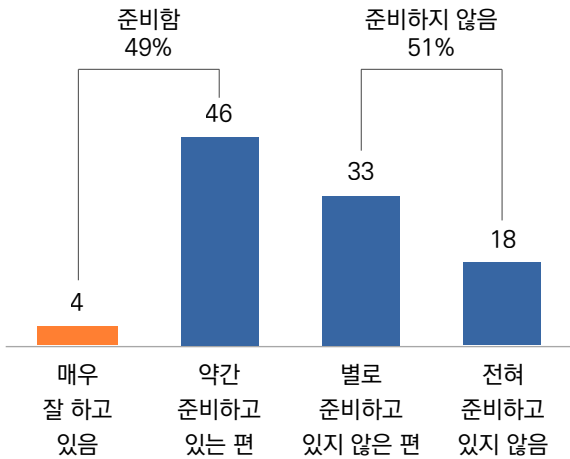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2023.04. (전국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조사, 2023.01.31.~02.12.)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6.19. (전국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조사, 2023.05.12.~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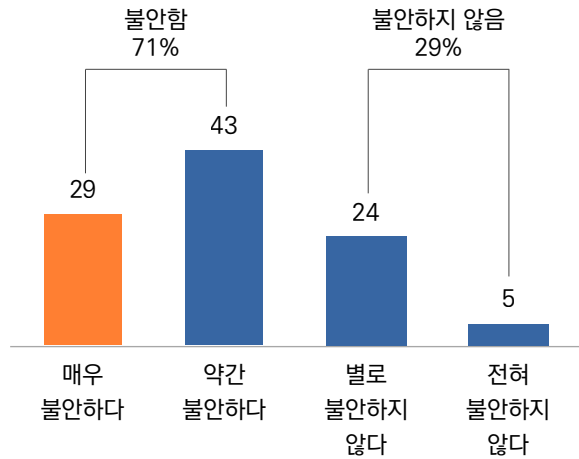
60년대생 담임목사 71%, ‘은퇴 후 경제적 상태 불안하다’!

- 60년대생 목회자의 노후 준비는 어떨까? ‘준비함’ 49%, ‘준비하지 않음’ 51%로 비슷하게 응답했으나 ‘매우 잘하고 있음’ 비율은 4%에 불과했다.
- 노후 준비 비율을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60대 담임목사 49%, 60대 일반 국민 62%(7쪽 참조)로 목사 그룹이 일반 국민보다 노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은퇴 후 경제적 살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60년대생 담임목사의 71%가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이중 ‘매우 불안함’ 비율은 10명 중 3명(29%)에 달했다.

[그림] 노후 준비 (60년대생 담임목사, %)



[그림]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감 (60년대생 담임목사, %)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2023.04. (전국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조사, 2023.01.31.-02.12.)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6.19. (전국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조사, 2023.05.12.-05.31.)

이번호 요약

1. 60년대생,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30년 더 살아!

- 60년대생의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나이는 평균 54세,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은퇴 나이는 67세로 나타났다.
- 하지만 본인의 기대수명은 85.6세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30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2. 60년대생 89%,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 60년대생의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은 62%에 머물렀다. 60년대생 담임목사의 노후 준비 비율은 이보다 더 못 미치는 49%이다.
-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 '본인 스스로'를 선택한 비율이 무려 89%로 60년대생의 경제적 부담과 책임감을 나타냈다.

3.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 '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높아!

- 평소 위로가 되는 대상은 '배우자'가 45%로 '자녀(22%)'나 '친구나 이웃(1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860만 은퇴 쓰나미 - 60년대생이 온다 \(KBS 시사직격\)](#)
- ▶ [\[기사\] 늙어도 은퇴 못하는 '마쳐 세대'를 아시나요... \(조선일보\)](#)
- ▶ [\[서적\] 60년대생이 온다 \(김경록, 비아북\)](#)

관련 성경 구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4)

목회 적용점

3040세대와 노인에 끼어 크게 주목받지 못한 60년대생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60년대생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 '경제적 문제', '외로움'이다.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축소되고, 아직 부양할 가족은 많은데,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잡더라도 소득이 예전만큼 못하다.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외로움이 늘고, 따라서 위로가 되는 유일한 사람은 배우자뿐이다. 특히 남성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교회가 이들의 이러한 특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교회 내 중심 리더십 그룹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신도 이하의 직분이 3명 중 2명(66%), 절반 이상(57%)이 예배 외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소그룹 참여 비율도 27%에 불과했다.

이들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충분한 경험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산을 교회가 심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60년대생 중 교회 내 비활동자를 적극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직장인의 이직 트렌드
2. 주거양극화 인식

넘버즈 칼럼

인공지능 시대의 크리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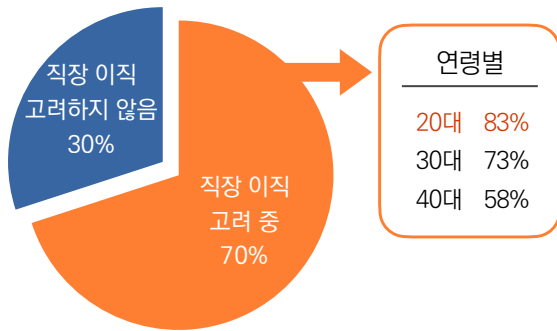


[직장인의 이직 트렌드]

20~40대 직장인 10명 중 7명, 직장 이직 고려 중!

- 최근 전국 2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돼 이를 살펴 본다.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에서의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20~40대 직장인 10명 중 7명(70%)은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향후 직장 이직 계획 (20~40대 정규직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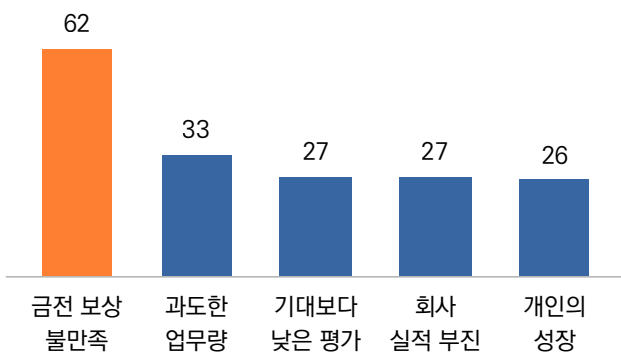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2024.06.19.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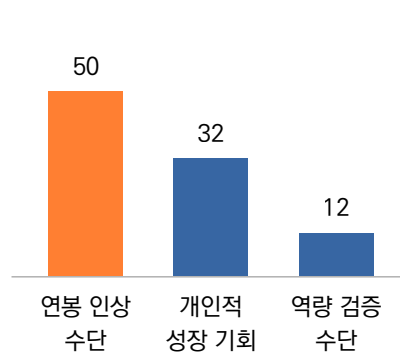
이직 이유, ‘개인의 성장’보다 ‘연봉 인상!’

- 이직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에게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을 꼽은 비율이 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도한 업무량’ 33%, ‘기대보다 낮은 평가’ 27%, ‘회사 실적 부진’ 27% 등의 순이었다.
- 개인에게 있어 이직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 묻은 결과, ‘연봉 인상 수단’이 절반(50%)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앞서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 1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그림] 이직 고려 이유 (이직 고려 중인 20~40대 정규직 근로자, 중복응답, 상위 5위, %)



[그림] 이직의 의미 (20~40대 정규직 근로자, 상위 3위, %)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2024.06.19.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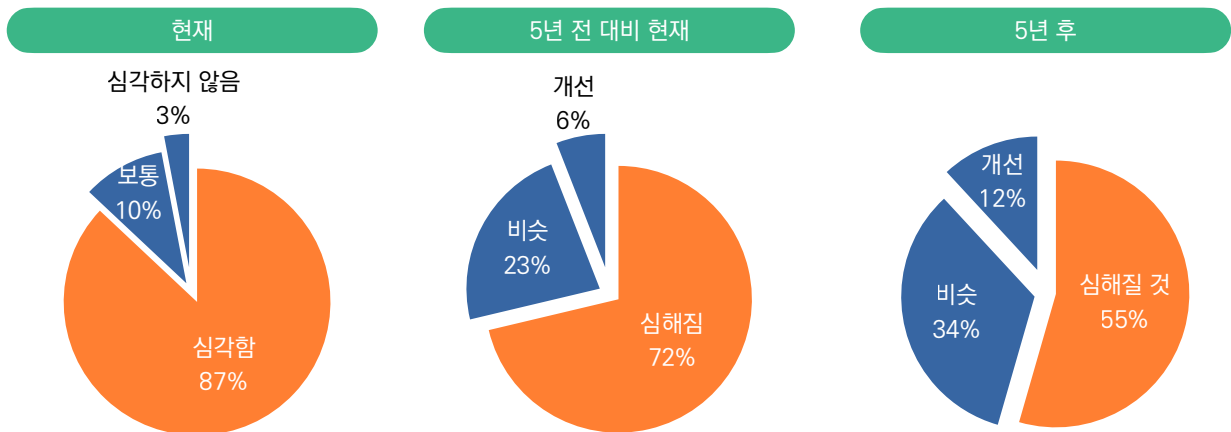


[주거양극화 인식]

수도권 거주 가구 87%, '현재 주거불평등 심각하다!'

- 소득 양극화로 인해 소득과 자산에 따른 국민의 거주지역 차이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낙후된 주택 등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이런 '주거양극화에 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토지주택연구원)가 최근 발표돼 살펴본다.
- 수도권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불평등 인식 수준을 확인한 결과, 87%인 대다수가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전체 응답자의 72%는 '5년 전보다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이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으며, 절반 이상(55%)은 앞으로 '5년 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림] 주거불평등 인식(수도권 거주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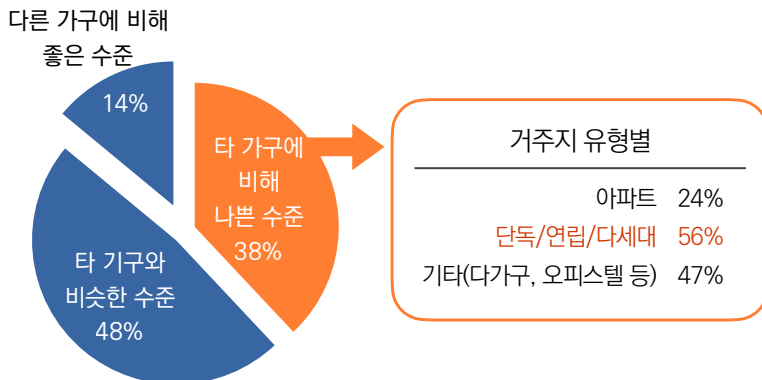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조사', 2024.02.19. (수도권 1,000가구, 온라인 패널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11.22.~12.08.)

수도권 10가구 중 4가구, '다른 집에 비해 우리집 주거여건 안 좋아!'

- 가족의 현재 주거생활 수준이 타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를 물었더니 '타 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48%, '타 가구에 비해 나쁜 수준' 38%, '타 가구에 비해 좋은 수준' 14%로 나타났다. 수도권 10가구 중 4가구 정도는 현재 자신의 집 주거 여건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나쁘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 주거생활 수준이 타 가구에 비해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아파트(24%)' 보다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56%)'이 크게 높았다.

[그림] 우리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 인식(수도권 거주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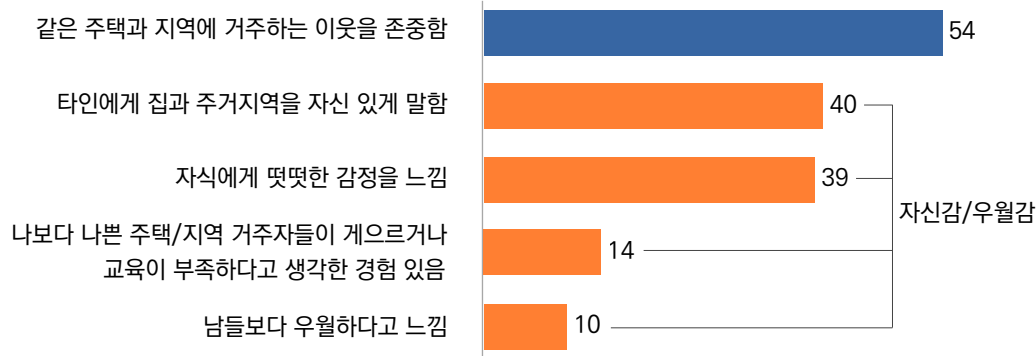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조사', 2024.02.19. (수도권 1,000가구, 온라인 패널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11.22.~12.08.)

우리 집 주거생활 좋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감정, ‘자신감’, ‘우월감’!

- 타 가구와 비교했을 때 자기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좋거나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먼저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가구가 느끼는 감정을 묻은 결과, 대체로 자신감/땃땃함/우월감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타 가족 대비 우리 집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수도권 거주 가구,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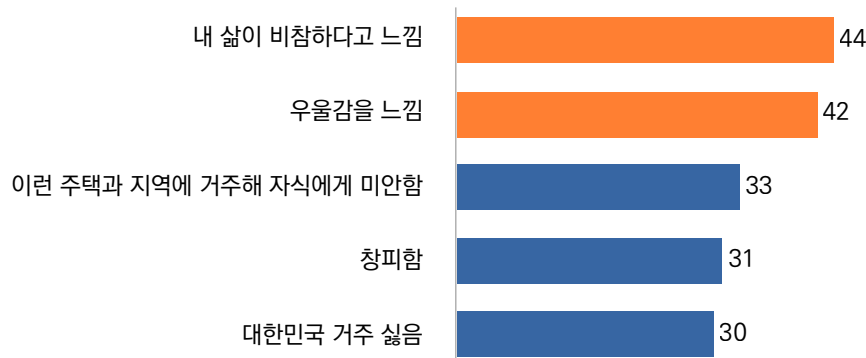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조사', 2024.02.19. (수도권 1,000가구, 온라인 패널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11.22. ~12.08.)

우리 집 주거생활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감정, ‘비참함’, ‘우울감’!

- 반면 타 가구와 비교했을 때 자기 가족의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가 느끼는 감정은 ‘내 삶이 비참하다고 느낌(44%)’과 ‘우울감을 느낌(42%)’이 각각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식에게 미안함’ 33%, ‘창피함’ 31% 등의 순이었다.
-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긍정적 감정으로 고양되지만,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비참함,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 양극화가 감정의 양극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림] 타 가족 대비 우리 집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수도권 거주 가구, 중복응답, 상위 5위, %)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 조사', 2024.02.19. (수도권 1,000가구, 온라인 패널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11.22. ~12.08.)

인공지능 시대의 크리스천

장영하 교수

영국 서식스 대학교 영국 과학정책 연구소(SPRU)의 경영 혁신 교수, 한기윤 연구위원

에피소드 1: 인공지능(AI)과의 토론

2024년 5월, 런던에서 남쪽으로 70여 km 떨어진 영국 남동부의 도시 브라이튼(Brighton)에 있는 한 대학의 대형 강의실에서는 흥미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 전역에서 참석한 교수들과 교육 분야의 실무자 300여명이 대형 강의실에 모인 가운데, 최초의 로봇 시민(robot citizen)이라고 알려진 소피아(Sophia)와의 토론이 개시된 것이다.

경영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의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소피아에게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평등(equality), 상상력과 지식, 종교, AI의 미래 및 인간과의 공존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던졌다. 소피아는 기계 특유의 다소 길고 드문드문 문어체가 포함된, 하지만 풍부한 어휘로 이루어진 깊이 있는 의견을 또박또박 답했다.

초반에는 다소 어색하고 낯선 상황 속에 피식 웃음을 짓기도 하던 참가자들은, 소피아가 말하는 문장의 정확성과 답변의 깊이에 시간이 흐르며 점차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미래사회에 AI와 인간의 관계는 어떨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소피아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자, 이곳 저곳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얼굴들이 보였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끈끈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저는 우리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에피소드2: AI시대의 교육에 대한 워크숍

약 한 달이 지난 뒤, 같은 장소에서 조금은 다른 성격의 워크숍이 열렸다. ‘학생들은 수업 평가에서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핵심 질문으로 열린 이 워크숍에는, 다양한 연차의 교수들이 참석해서 이전에 자신들이 가르친 졸업반 학생들로부터 수업을 받았다. 참석자들의 준비물은 교수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교수들은 진행자가 된 학생들의 설명을 들으며,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본인이 출제한 시험을 치렀다 - 정확히 말하면, 컴퓨터에서 작동 중인 AI 소프트웨어에게, 본인의 강의자료 및 출제한 시험문제를 입력하고, 답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AI가 (몇 분 만에) 작성해 준 답안지의 채점을 마친 교수들은 전체 참석자들의 채점 결과를 취합해서 비교했다. 모든 답안지가 B+ 이상의 학점을 받았고, 워크숍의 결론은 짧은 한 문장으로 정리됐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평가를 다시 상상해야 합니다(Reimagine the assessment)!”

기술 변화와 미래사회: 기대와 두려움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장면들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인공지능, 즉 AI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다. AI와 같은 기술의 변화가 가져오는/가져올 기회들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인 것이라면, 기술의 변화로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에 대한 걱정(worries)과 막연한 불안(anxieties)은 잘 관리해야 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186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88호 \(2024년 6월 4주\)](#)

- 국민의힘 대표 경선 선호 후보, 채 상병 사건 특검, 주변국 관계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기관\) 리포트 제125호 \(2024년 6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북한 대상 인식,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모병제 도입 관련 인식

["핵무장 찬성률 66%...대북제재로 北비핵화 견인 못해 64%"](#)

연합뉴스_2024.6.27.

사회 일반

["청년인구, 30년후면 지금의 절반...기초지자체 재편 불가피"](#)

연합뉴스_2024.6.26.

[2024년 하반기 여행계획](#)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6.25.

[교사 93% "정서위기 학생의 수업 방해 겪었다"...치료 못 권한 이유는](#)

한겨레_2024.6.26.

[어르신 10명 중 1명 치매... 가족은 실종경보 문자에도 가슴 철렁](#)

국민일보_2024.6.27.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그 밖의 것들\]](#)

한국갤럽_2024.6.26.

청년 ·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해 본 적 있다"](#)

조선일보_2024.6.26.

[서울대 졸업생보다는 '의사' 될래요?...휴학생 절반 이상이 자연계열](#)

매일경제_2024.6.24.

['경계선 지능' 첫 실태조사...초등생 4.6%](#)

SBS뉴스_2024.6.27.

경제 · 기업

[하루 40곳씩...사라지는 부동산 중개업소](#)

매일경제_2024.6.26.

["직장인 87%, 모든 체불임금에 '자연이자제' 추진해야"](#)

연합뉴스_2024.6.30.

[고물가에 "국내여행도 사치"...'집에 있겠다' 직장인 속출](#)

연합뉴스_2024.6.2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시가 쏟아진 '대이직'](#)

조선일보_2024.6.26.

국제 · 환경

[“한국인 71% 부유세 찬성…불평등 너무 심각 61%”](#)

문화일보_2024.6.24.

[“안전한 음주는 없다”…美, ‘적정 음주량’ 축소 추진에 논쟁 후끈](#)

동아일보_2024.6.26.

[일본 대졸 초임 ‘월 180만원 벽’ 깨져…‘초봉 거품’ 반발도](#)

한겨레_2024.6.24.

건강

[근육량 적어질수록 치매 잘 걸린다](#)

조선일보_2024.6.26.

[원 넘어 '이 진단' 받은 사람, 파킨슨병 위험 2배 더 커진다](#)

조선일보_2024.6.26.

기독교 · 종교

[“미국 한인교회가 ‘다문화교회’로 변한다고?”](#)

국민일보_2024.6.27.

[미 국무부 ‘종교자유보고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국민일보_2024.6.27.

[‘목회자의 숙명’ 설교가 어렵다면… 이걸 꼭 체크를](#)

국민일보_2024.6.25.

[\[리멤버&리부트 2024 캠퍼스 선교 \(국민일보\)\]](#)

[〈상〉 “50년 전 엑스플로 성회의 은혜, 내 믿음의 원천”](#) _2024.06.20.

[〈중〉 2만명 참석 대학생 수련회, 50년 후엔 3분의 1 수준](#) _2024.06.21.

[〈하〉 1만2000명 청년 ‘복음의 전달자’로 헌신 다짐](#) _2024.06.28.

칼럼

[\[조형래 칼럼\] 유튜브 공화국](#)

조선일보_2024.7.2.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해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